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Vol.23 No.3 Serial No.104 _ 2014. 06
http://dx.doi.org/10.14774/JKIID.2014.23.3.144

라빌레뜨 이후 현대건축에서 나타난 폴리 프로젝트 사례 연구

A Study on the Cases of Folly Project in the Contemporary Architecture After Parc de la Villette

Author 강효정 Kang, Hyo-Jeong / 정회원, 강남건축사사무소 대리, 공학박사

Abstract This study evaluated how folly is experimented in the contemporary architecture after 30 years when Bernard Tchumi first introduced it to the public by the modern transformation as a garden ornament.
First, folly project has been carried out based on the general concept of energizing dwindling cities. However, it has changed to the direction of adding specific programs. Also, along urban regeneration that does not change deterioration of previous structures, Folly changed in the emphasis on readjust existing structure.
Second, by having different designers presenting their own follies during the Osaka Expo, folly now has part on visual exhibition element. This has similarity with public art project, yet it could more actively intervene for urban regeneration compared to conventional environment sculpture.
Third, folly is experimented as the event-installation art combined form of architecture and art where people could experience the space and enjoy art.
Fourth, folly enabled the landscaping of architecture and expanding city planning. Recently Gwangju Folly invited various arts, social, and cultural professionals to converge city design with architecture, landscaping, and other diverse genres.

Keywords 폴리, 광주 폴리, 프로그램, 도시재생, 공공디자인
Folly, Gwangju Folly, Program, Urban Regeneration, Public Art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그림 1> 전통적 개념의 폴리

'폴리(Folly)'는 전통적으로 조경의 영역에서 주로 쓰이던 용어로, 원래 정원 디자인에 포함되는 프로그램이 없는 특이한 형태의 작은 집을 의미하는 단어였다[1]. 그러나 탈산업화 사회로 이전하면서, 전통적인 시공간의 개념의 변화와 함께, '폴리(Folly)' 또한 그 의미가 변화, 확장되게 되었다.

정보화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사회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해졌으며,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함께 20세기 말 건축가들은 현대 사회의 불확정적이고 다층적인, 복잡한 현 상을 수용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와 건축의 관계 설정을 시작하게 되었다.[2] 이에 대표적인 사례로 베르나르 츄미(Bernard Tchumi)의 라빌레뜨 공원(Parc de la Villette, 1983)을 주목해야하고, 여기서 폴리(Folly)는 근대 정원디자인의 수법에서 나아가 21세기 새로운 건축적 유형으로서 재해석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후 2011년 대한민국 광주광역시에서는 '제4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주제 전시 중 '장소/Gwangju Folly'라는 주제로 좀 더 진화된 폴리를 보여주고 있으며, 2014년 현재, 벌써 3번째 폴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광주를 비롯하여 최근 여러 도시에서 폴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현대 건축에서 폴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재된 채 계획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주목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정원 장식물에서 베르나르 츄미에 의해 현대적 변용으로 일반에게 새롭게 알려진 이후, 약 30년 동안 폴리가 현대 건축에서 어떻게 실험되었는지 살펴보고, 나아가 순차적으로 진행 예정인 광주 폴리 프로젝트에 기초적인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 승효상, 아이웨이웨이, 도가도비상도 圖可圖非常圖, 초판, 도서출판 광주비엔날레, 광주, 2011, p.17

2) Manuel Gausa, Housing: New Alternatives-New Systems, ACTAR, Barcelona. 1998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범위는 정원 장식물에서 건축적 유형으로서 현대적인 변용 가능성을 최초로 보여준 사례인 베르나르 츄미의 라빌레뜨 공원(1983)을 시작으로 현재 진행 중인 광주 폴리(2011~)까지 지난 30년간 다양한 도시 곳곳에서 시도된 폴리들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다만, 아직까지 폴리는 건축적 유형으로써 명확한 정의가 되어있지 않고[3], 현재도 진화 중이기 때문에 폴리와 비슷한 유형의 모든 공공 시설물을 사례에 포함하지 않고, '디자이너가 구조물을 폴리라고 명명했을 경우'에 한하여 사례를 선정하였다.[4]

<표 1> 분석 사례 목록

사업명	지역 및 시기	참여 작가	
Expo'90 오사카, 국제 꽃과 녹음의 박람회 (The International Garden and Greenery Exposition)	Osaka, Japan, 1990	Peter Salter+Chris Macdonaldo, Perter Wilson, Zaha Hadid, Ryoji Suzuki, Peter Cook+Christine Hawley, Coop Himmelblau, Jose.A.Lapena+Elias Torres, Morphosis, Daniel Libeskind, Adrea Branzi, Elia Zenghelis, Hajime Yatsuka	
나다 컨트리클럽과 NCC Folly 계획안	경기도 안성, 대한민국, 1992	승효상, 도각, 이일훈, 김병윤, 곽재환, 방철린, 이성관, 이종상, 백문기	
Docklands New Quay Follies	Melbourne, Australia, 2003	Jessica Liew, Sherry Anne Kwok (RMIT Architecture)	
국립현대미술관 아트폴리 (Art Folly) 展 큐브릭	경기도 과천시, 대한민국, 2012	김찬중	
광주 폴리(Gwangju Folly)	광주광역시, 대한민국, 1차(2011) / 2차(2013)	1차	Juan Herreros, Florian Beigel, Yoshiharu Tsukamoto, Nader Tehrrani, Alejandro Zaera-Polo, Peter Eisenman, 김세진+정세훈, 조성룡, Dominique Perrault, Francisco Sanin, 승효상
		2차	Ai Weiwei, David Adjaye+Taiye Selasi, 서도호, Eyal Weizman, Raqs Media Collective, Rem Koolhaas+Ingo Niermann, 고석홍+김미희, Superflex
성북동 폴리 시인의 방 - 방우산장	서울특별시, 대한민국, 2014	㈜매스씨앤지 + ㈜제이에스비도시환경	

베르나르 츄미의 라빌레뜨 공원(1983) 이후, 지난 30년간 다양한 도시 곳곳에서 시도된 폴리 프로젝트들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폴리가 현대건축에서 어떠한 의미로 계획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정원 장식물에서 건축적 유형으로서 폴리가 나타나게 된 배경을 이해하고, 라빌레뜨 이후 여러 사례에서 폴리의 특성을 고찰해봄으로써, 현대 건축에서 폴리의 의미를 해석해본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진행 예정인 폴리 프로젝트에 기초적인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3) '폴리(Folly)'에 대한 건축 용어로서의 정의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특정한 기능이 없는 규모가 작은 건축물로 통용되고 있다.

4) 2009년 경희궁에 설치된 건축가 렘쿨하스(Rem Koolhaas)의 '프라다 트랜스포머(Prada Transformer)'와 같은 건축물은 현재 통용되고 있는 폴리와 유사한 구조물에 해당되지만, 디자이너가 구조물을 폴리라고 명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은 분석 사례에서 제외하였다.

2. 불확정성을 반영하는 유연한 계획, 라빌레뜨 공원(Parc de la Villette, 1983)의 폴리

1982년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파리 도시 전반에 걸친 도시계획 프로젝트 중 일부인, 라빌레뜨 공원은 당시 대규모의 공모전을 통해 설계자를 선정하였다. 이 공모전을 통해, 당시 현대 도시의 불확정성에 대응하여 여러 건축 주제들이 실험되었다. 한편, 근대적 사고의 범주에서는 도시계획 혹은, 조경의 영역으로 구분되는 이 프로젝트에 건축가들의 참여와 당선으로 영역의 구분이 모호해지게 되었으며, 공원 역시 근대적 공원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공원이 제안되었다.

베르나르 츄미는 라빌레뜨의 설계 전략으로 '폴리'라는 새로운 건축적 언어를 도입함으로서 공모에 당선되었다. 츄미는 프로그램이 없는 10X10X10m 규모 빨간 철골 구조물 41개를 120m 간격의 그리드로 일정하게 배치하였다. 츄미는 어떤 것도 규정되지 않은 이 붉은 폴리들을 통해, 공원을 찾은 다양한 사람들이 의도치 않은 풍성한 이벤트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현대 도시의 불확정성을 반영하는, 유연한 계획안을 제시하였다. 즉, 라빌레뜨에서 폴리는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불확정적 건축 요소로 새롭게 정의되었다. 츄미는 비고정적이고 통제와 예측이 불가능한 도시를 더 이상 해결해야할 문제로 보지 않고, 흥미로운 사건이 끝없이 전개되는 이벤트의 장으로 의도한 것이다. 여기서 이벤트는 예측된 결과로 확정적인 세트인 프로그램과는 구별되는, 예상 밖의 결과로 미확정된 세트를 의미하며,[5] 폴리는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벤트를 작동시키는 방법은 폴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인 가변성, 불일치, 모순성, 중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폴리의 작동은 건축가의 의도가 아닌 사용자의 의도에 전적으로 맡겨진다.

<그림 2> 츄미의 라빌레뜨 공원 폴리

5) 길성호, 수용미학과 현대건축, 초판, 시공문화사, 서울, 2003, p.76

3. 사례별 폴리의 의미 고찰

현대 도시의 불확정성을 반영하는, 유연한 계획 요소로서 폴리가 현대 건축에서 새롭게 정의된 라빌레뜨 이후, 약 30년 간 도시 곳곳에서 시도된 폴리 프로젝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3.1. Expo'90 오사카, 국제 꽃과 녹음의 박람회

1990년 여름, 일본 오사카에서 '꽃과 녹음'이라는 주제로 정원 박람회가 개최되었다. 박람회의 프로듀서였던 일본 건축가 아라타 이소자키(Arata Isozaki)는 약 140ha의 회장을 산, 들판, 거리 3개의 지형적 특성에 따라 영역을 나누어 새로운 정원의 모습들을 전시하도록 계획하였다. 한편, 회장의 산 영역 속의 십자로라 불리는 작은 광장에 12명의 건축가들을 초청하여 13개의 폴리를 계획하도록 하였다. 이소자키는 당시 AA School의 학장 알빈 보얄스키(Alvin Boyarsky)와 의논하여 AA에서 가르친 경력이 있는 건축가로서 국적을 달리하는 조건하에 10인, 그리고 일본에서 2인을 선정하였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건축가들이 선택되어 폴리를 전시하게 되었다.[6]

<그림 3> 꽃과 녹음의 박람회 폴리들

이소자키는 당시 진보적인 교육기관과 연계해, 새로운 정원의 모습이 실험되는 장으로서 박람회장에 폴리를 계획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소자키는 근대 정원의 주제였던 파라다이스가 이제 사회적 이벤트로서 어떻게 조립되는가를 지켜보며 확인하고자 기대했었다.

박람회의 폴리들은 라빌레뜨 폴리와 비교했을 때, 박람회가 끝나면 철거되는 일시적인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 또한, 1명의 작가가 아닌 폴리마다 개별 작가의 실험이 있었던 프로젝트라는 차이가 있다. 라빌레뜨의 폴리는 일정 간격으로 배치된 점 그리드가 십자 모양의 연결구조를 가지고, 이 점과 선의 체계가 유연하게 면을 이루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츄미의 그것과 달리 박람회의 폴리는 전체의 조형과 색상, 그리고 위치가 예기치 못한 장소에 일관성 없이 해프닝처럼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 회장 내의 전체 시설물과의 연계체계나 컨텍스트가 배재되어 있는 독자성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박람회의 폴리는 건축가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일시적인 반건축물, 해프닝적 요소들, 당시 최신 유행하는 현대 건축의 실험적 모습의 전시물[7], 박람회의 시각적 즐거움의 요소 등으로 주로 해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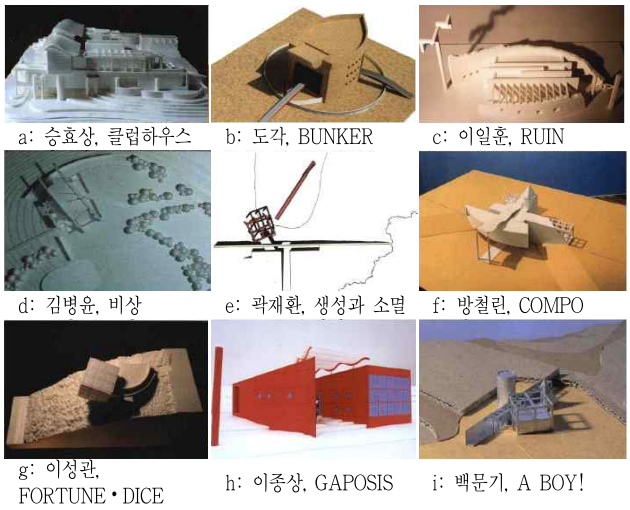
21세기 새로운 공원의 모습을 위한 장치로서 라빌레뜨의 폴리를 정원 박람회에 차용하여, 다양한 건축가들에게 폴리의 실험을 맡긴, 꽃과 녹음의 박람회에서는 라빌레뜨 이후의 이렇다 할 폴리의 진보를 제시해 주지는 못했다. 그러나 라빌레뜨가 개척한 녹색 치유의 공간으로서의 정원이 아닌 이벤트의 장으로서의 정원의 모습에 대한 실험을 이어나갔으며, 조경가의 잔치였던 정원박람회에 건축가가 주요 전시 부분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탈장르화된 21세기 정원의 모습을 실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3.2. 나다 컨트리클럽과 NCC Folly 계획안

오사카 박람회가 끝나갈 무렵, 1990년 건축가 승효상은 경기도 안성의 골프장 계획에서 클럽하우스 설계를 의뢰받았다. 그는 기존 골프장의 부정적 인식, 대자연을 파괴한 후 그 속에 아방궁을 짓고 남들이 일하는 시간에 골프채를 흔들며 노니는 비생산적, 반문화적 행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아닌 골프장을 하나의 경관 디자인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하고자 했다. 그는 나다 컨트리클럽의 성격을 Sculpture Garden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1990년 말경, 비슷한 시기에 개최된 오사카 박람회의 폴리와 라빌레뜨의 폴리에 착안하여, 그는 컨트리클럽의 티하우스(Tea House), 스타트 하우스(Start House) 8동을 폴리로 구상하게 되었다. 8개의 이 시설물들을 혼자 설계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이 나누어서 하는 것이 Sculpture Garden이라는 개념의 골프장 성격에도 훨씬 어울릴 건축적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1991년 5월, 8개의 그늘집 설계 프로젝트(NCC Folly)에 참여할 건축가 8인은 4.3그룹의 13인의 건축가 중 연령이 적은 쪽에서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8]

6) 도각, "꽃과 녹음의 박람회에 나타난 Follies", in 월간 건축문화, 월간 건축문화사, 서울, 1990.10, p.74

7) 박람회에 전시된 대부분의 폴리들은 당시 유행하던 해체주의(Deconstructivism)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4> NCC Folly

NCC 폴리는 1992년 계획안을 끝으로 정부 정책변화와 계속되는 불황으로 지어지지는 못했다. NCC 폴리는 이 계획의 코디네이터(Coordinator)였던 승효상이 밝혔듯이, 오사카 박람회 폴리에 착안하여 AA School로 대변되는 진보적 건축그룹을 국내 4.3그룹으로 치환하여, 여러 진보적 건축가들을 통해 폴리를 국내에서 실험해보고자 했던 시도였다. 단, 이전의 라빌레뜨와 오사카 박람회와 같이 공원과 비슷한 성격의 장소이지만, 이전의 폴리와 그 성격에 큰 차이가 있다. 이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시공간이 아닌, 장소의 이용자가 골프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다는 점에서, 폴리의 배치 체계도 골프경로에 따르고, 사용자들이 만들어내는 사건도 휴식과 준비로 미리 예측가능하다. 이처럼 NCC 폴리는 현대 도시의 불확정성을 반영하는 유연한 계획의 시도로서 사용된 장치는 아니었지만, 장소적 특성에 따라 건축적 요소로서 폴리가 변용될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또한, 오사카 박람회와 같이 폴리가 조형물로서, 시각적 전시효과를 가지는 문화적 기능을 가지게 됨으로써, 국내 골프장의 부정적 인식을 경관디자인을 통해 새롭게 전환시키고자 했던 새로운 폴리 프로젝트의 시도였다.

3.3. Docklands New Quay Follies

호주의 제2의 도시 멜버른은 빅토리아주 정부의 도시개발 계획에 의해 서쪽과 남쪽으로 도시가 확장되어가고 있다. 멜버른의 서부에 해당되는 도크랜드(Docklands)는 시드니의 달링하버를 벤치마킹하여, 도크랜드의 뉴키(New Quay) 항만을 따라 2001년 도시재개발을 시작해, 현재는 아름다운 수변야경이 있는 멜버른의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다. 도크랜드 재개발의 중심인 뉴키를 따라 이색적인 건물과 바, 레스토랑이 들어서 있고, 주변으로 유명 작가들의 다양한 예술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주 정부가 도크랜드의 재개발 예산 중 일부를 공공예술에 할당하는 등 수변공간 디자인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수변경관을 따라 들어선 아름다운 건축물과 공공예술품 중 2개의 폴리가 지어져 있다. 폴리는 2001년 9월 공모전을 진행하여, 계획안을 선정하였고, 2003년 지어지게 되었다.[9]

<그림 5> Docklands New Quay Folly

뉴키 지역은 바다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보며,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바와 레스토랑 등 요식 프로그램 빌딩들이 계획되었으며, 뉴키 폴리 또한 간단한 요식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수공간에 떠있는 소규모 건축물로 계획되었다. 폴리 1은 지역의 유명한 아이스크림 가게로, 폴리 2는 간단한 해산물 요리를 파는 Fish Bar로 뉴키의 명소가 되었다. 도시의 수변경관을 끌어들인 소규모 상업공간으로, 뉴키의 폴리는 정의될 수 있다. 덧붙여, 낙후된 도시재개발에 있어, 상업적 프로그램과 주변 도시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도시민을 유입하는 건축적 요소로서 폴리의 의미가 사용되고 있다.

한편, 도크랜드 뉴키 폴리는 지난 2009년 서울시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한강 전망쉼터와 매우 유사하다.[10] 그러나 도시재개발 계획 시 항만으로의 접근성에 기반, 철저한 보행자 위주의 동선체계에 따라 배치된 도크랜드의 건축물과 폴리에 반해, 한강 전망쉼터는 최근 열악한 접근성으로 인한 이용객의 감소로, 접근성 개선 및 주차문제는 한강 전망쉼터의 개선점으로 매년 논의되고 있다. 이 사례는 폴리를 배치함에 있어, 주변 도시의 컨텍스트를 잘 이해하고 반영해야하며, 나아가 폴리들과 건축물의 군집이 이루는 체계가 있어야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그림 6> 한강 전망쉼터

8) 승효상, "나다 컨트리크럽과 NCC FOLLY", in 월간 건축문화, 월간 건축문화사, 서울, 1992.5, pp.162-165

9) http://architecture.rmit.edu.au/Projects/Docklands_Built_Projects

10) http://hangang.seoul.go.kr

3.4. 국립현대미술관 아트폴리 展 큐브릭

<그림 7> 김찬중의 큐브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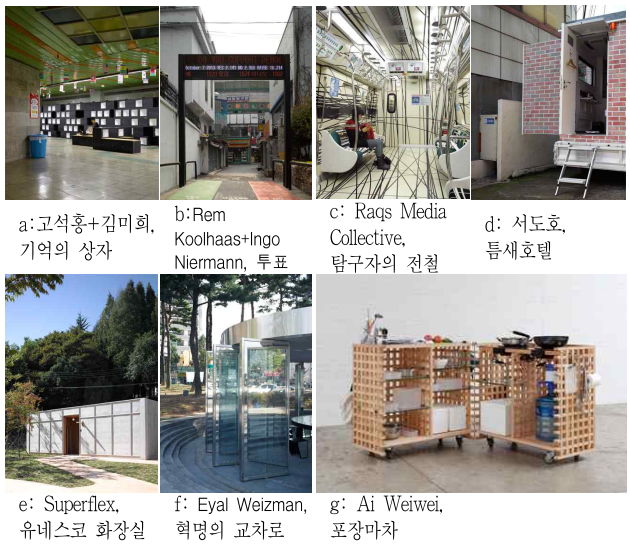
국립현대미술관은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써, 2012년 1월 '전시장 바깥에서 미술과 건축의 만남'을 키워드로 '아트폴리 展'을 진행하였다. 일정 기간 동안 야외 설치되는 폴리는 연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2012년 1월부터 6월까지 전시된 건축가 김찬중의 '큐브릭' 이후 연작은 없는 상태이다. 움직이는 미술관 큐브릭은 미술관 바깥 서울대공원 입구 앞 광장, 서울대공원 야외, 미술관 조각공원 등으로 자리를 이동하며 6개월간 전시되었다. 작품은 1m 큐브를 기본 모듈로 하여 총 42개를 쌓아 만든 구조물로, 미술관 전시와 문화행사 정보를 담은 공간으로 그 자체가 작은 미술관으로 기능한다.[11] 이는 현대미술의 주요 담론인 '미술관 밖 미술', '찾아가는 미술관'을 실제화한 프로젝트로 건축의 열린 경계와 공공성을 미술에 접목시켜, 일상공간에서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는 소통의 작품을 지향하고 있다. 아트폴리 展의 폴리는 대중의 참여와 소통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라빌레뜨를 비롯하여, 도크랜드 뉴키 폴리와 유사점이 있다. 그러나 한 차원 더 깊이 봤을 때, 앞 사례들이 도시의 활력감을 주기 위한 의도였다면, 본 사례는 미술이 대중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소통의 매체로서 폴리가 의도되고 있다. 또한, 본 사례는 오사카 엑스포의 폴리와 같이, 가변적이고 해프닝적 요소로써, 외부공간에 일시적으로 전시되는 설치미술의 건축화된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3.5. 광주 폴리

광주 폴리 프로젝트는 건축가 승효상과 베이징 출신의 아이 웨이웨이(Ai Weiwei)가 감독으로 있었던 2011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일환으로 시작된 프로젝트로, 2013년 2회를 맞이하면서, 현재는 광주 지역의 독립적인 프로젝트로 이어나가고 있다. 광주 폴리는 참여 작가들에 의해 '공공공간 속에서 장식적인 역할 뿐 아니라, 기능적인 역할까지 아우르며 도시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물'로 폴리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자체 정의하고 있다.[12]

현재까지 진행된 광주 폴리 I, II는 모두 광주 구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되었다. 광주를 비롯한 대전, 대구 등 국내 지방 도시에서 구도심의 도심공동화 현상은 오늘날 큰 도시 문제 중 하나이다. 이에 대응하여 광주에서는 쇠퇴된 도심지역 전체를 재개발하는 라빌레뜨와 도크랜드의 방식과 다르게, 저비용 고효율의 유명 디자이너의 브랜드로서 폴리를 도심에 삽입하여, 구도심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즉, 무엇보다도 광주 폴리는 도시재생의 건축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8> 광주 폴리 I



<그림 9> 광주 폴리 II

광주 폴리는 지금까지 여러 도시에서 시도된 폴리 프로젝트의 여러 면들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먼저 오사카 폴리와 큐브릭을 제외한 폴리들에서 그러했듯이, 군집으로서의 폴리를 인정하고 있다. 즉, 폴리가 도시 안에

11) http://www.mmca.go.kr/exhibitions
12) http://www.gwangjufolly.org

서 단위개체로 작동하기보다는 군집되어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며, 그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계획되었다. 단, 광주 폴리는 라빌레뜨의 그리드 체계, NCC 폴리의 라운딩 코스 설계에 따른 체계, 그리고 도크랜드 뉴키 폴리의 수변을 따라서 가지는 건물, 예술품들과의 체계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기존의 도시를 전면적으로 다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폴리라는 소규모 장치만 삽입하는 방식으로, '시간'이라는 경관의 매체적 성격이 광주 폴리에는 삽입되어 있다. 따라서 폴리가 삽입될 도시의 특별한 장소 선정에 있어, 디자이너들은 그 도시의 역사와 문화, 시간의 켜를 고려하여 폴리의 군집 체계를 설정하고, 나아가 군집의 장소들에서 실험하고자 하는 공통된 주제를 프로그램으로 반영하고 있다. 또한, 광주 폴리는 오사카 박람회 폴리와 NCC 폴리 등에서 시도된 바와 같이, 도시 경관 디자인의 공공예술적 기능, 즉 유명 디자이너들이 작업한 시각적 조형물로서도 존재하고 있다.

3.6. 성북동 폴리, 시인의 방 - 방우산장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일대는 한양도성 북측에 위치해 자연환경이 뛰어난 데다 서울 한양도성, 간송미술관, 상허 이태준 고택 등 역사자원이 풍부하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획일화된 대규모 건축물이 난립하는 등 경관훼손이 문제시 되어 이 일대 건축물과 용도에 대한 기준을 마련, 역사성을 보존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 2013년 10월 '역사문화지구'로 선정되었다. 성북동 역사문화지구의 실현을 목표로 계획된 여러 공공사업 중 '어번 폴리(urban folly)'가 있다. 성북동 조지훈 시인의 집터 주변에 조지훈 시인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공간으로서, 폴리를 계획하였다. 2012년 9월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했으며 공모를 통해 ㈜매스씨앤지와 ㈜제이에스비도시환경이 공동제안한 '시인의방-방우산장' 작품이 선정되었고, 2014년 1월 준공되었다. 성북동 초입 도로가에 조성된 이 폴리는 이 지역의 문화적 첫인상에 대한 상징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성북동문화예술탐방로의 출발점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13]

성북동 폴리는 폴리들이 군집되어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북동문화예술탐방로를 구성하는 여러 점적인 구성 요소 중 하나로, 폴리가 있는 장소의 역사와 문화, 시간의 켜를 프로그램화하여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광주폴리와 함께, 국내에서 같은 시기에 진행된 매우 유사한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다.

13) http://www.seongbuk.go.kr/newtown/plan/sector/status/Index.jsp

<그림 10> 성북동 폴리, 시인의 방 - 방우산장

4. 라빌레뜨 이후, 현대건축에서 폴리 의미

4.1. 쇠퇴된 도시의 활력을 위한 장치

탈산업화로 인해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는 도시공간의 유형들(post-industrial site, brownfield, landfill, etc.)이 급증하였고,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도시 프로젝트는, 21세기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사고의 변화와 함께, 이전의 도시 디자인과는 다른 새로운 시도들이 실험되었다. 이 때, 쇠퇴된 도시에 다양한 이벤트를 발생시켜 도시의 활력을 돕는 건축적 장치로써 폴리가 현대건축에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다. 베르나르 츄미의 라빌레뜨 공원을 시작으로, 도크랜드의 뉴키 폴리, 그리고 광주, 성북동 폴리까지 폴리는 이러한 공통적 맥락을 유지하고 있다. 도시 공간 안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건축적 장치라는 공통된 성격 안에서 폴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내용이 조금씩 변경되어 왔다.

(1) 프로그램의 삽입

라빌레뜨는 당시 근대도시에 대한 반성으로 단일공간의 기능적이고 형태적인 완성도보다, 현대 도시의 불확정성과 가변성을 중시, 유연한 계획을 지향하는 새로운 시도였다. 사용자의 폴리와의 상호작용에 따른 비결정적으로 발생되는 우연과 사건이 설계의 핵심 개념이었다. 이를 위해 츄미는 '비어있음(emptiness)'과 '프로그램화하지 않음(non-programmed)'의 개념을 폴리에 투영해 구현하였다. 즉, 아무 의미가 없는,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미확정된 세트인 붉은 구조물을 대지에 일정 간격으로 배치함으로써, 오로지 사용자의 의도에 의해 사건이 발생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도크랜드 뉴키 폴리와 광주 폴리, 성북동 폴리의 사례를 보면, 2000년대 이후부터는 현대 도시의 불확정성보다, 지금까지 축적된 그 장소의 시간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즉, 어떤 의미도 담고 있지 않은 비어있는 공간으로서 폴리를 계획하기보다는, 그 장소가 가지는 여러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시간의 켜를 고려하여, 장소가 필요로 하는 기능 또는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프로그램화하여 삽입한, 더욱 건축적인 모습의 폴리로 변화되었다. 한편, 일반 대중들이 직접적으로 인지 가능한, 요식 프로그램이 삽입된 뉴키 폴리와 같은

경우, 이벤트가 요식행위로 한정되었을지언정, 그 지역의 명소로 자리매김 할 만큼 폴리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이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광주 폴리는 훨씬 다양한 분야의 디자이너를 초청하여, 공연, 독서, 화장실, 호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삽입, 그 지역의 역사, 문화적 메시지를 폴리를 통해 전하고 있다. 여전히 실험 중에 있는 시점에서 그 성패를 논하기는 이르지만, 광주 폴리는 작가의 의도와 다른 사용자와 폴리 간의 상호작용이 발생하면서 약간의 삐걱거림이 발생하고 있다. 요식 같은 원초적인 프로그램 삽입이 능사는 아니지만, 폴리는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광주 폴리는 작가와 도시민의 소통을 통해, 작가의 의도가 지금보다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림 11> 작가가 의도와 다른 광주 폴리와 도시민의 상호작용

(2) 현 도시조건(Existing Structure)의 재조정에 대한 강조

폴리에 프로그램이 삽입되어 가는 과정과 연결되는 내용이다. 쇠퇴된 도시를 활성화시키고자 할 때, 예전과 다르게 전면 재개발을 통한 재생보다는 기존의 도시 공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켜를 보존하면서 진행되는 방식으로 도시 재개발의 모습이 변모하고 있다. 또한, 도시 자체 건조물의 재건 등을 통한 하드웨어적인 재생보다는, 마을 만들기 등의 방식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게 하여, 시민들에 의해 도시재생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적 접근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폴리 또한, 새로 개발된 빈 공간에 점, 선, 면의 불확정적인 시스템에 따라 배치되기보다는, 현 도시 조건의 대지, 건물, 사용자의 맥락에 따라 폴리가 삽입될 장소를 선정하고, 그 장소에서 실험하고자 하는 주제를 프로그램으로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폴리는 도시민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활발한 이벤트 발생을 통해 도시재생의 촉진제 역할을 기대 받고 있으며, 시간에 따라 변화된 도시재개발의 접근에 따라 기존 도시 조건을 고려한 계획이 새롭게 강조되고 있다.

4.2. 경관 디자인의 시각적 전시 조형 요소

라빌레뜨의 폴리는 붉은 철재 구조물로 폴리 자체가 환경 조형물로서 미술적 전시효과는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오사카 박람회의 폴리부터는 각각의 폴리를 서로 다른 디자이너가 맡아, 디자이너 브랜드를 가지는 예술품으로 존재한다.

앞 절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도시의 발전과정에 있어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전통적으로 도시의 중심이었던 지역이 여러 가지 이유로 쇠퇴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기에는 노후 시설들을 전반적으로 재개발하는 물리적인 방식의 재개발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존 도시구조를 파괴하는 방식의 재개발보다는 기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시간성을 반영한 환경조형물을 삽입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2000년대 이후 여러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에 삽입한 환경조형물은 지역 환경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도시의 장식이나 미화를 떠나 근본적으로 도시생활 환경에 영향을 주어, 도시재생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오사카 박람회 폴리 이후의 지금까지 폴리 프로젝트와 매우 유사하다. 서울에서도 지난 2007년부터 '서울시도시갤러리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서울의 주요 거리와 공공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a: 윤영석, 인사동길 일획을 긋다
b: 조호연 외, 망원동 꽃밭주택
c: 최병훈, 덕수궁길 아트벤치

<그림 12> 서울시도시갤러리프로젝트

현재의 폴리는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가지는 도시의 어메니티 조성과 문화공간으로서의 도시의 장소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덧붙여, 환경조형물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자와 적극적인 상호관계를 맺는 건축물로 변화되었다.

4.3. 이벤트성 설치미술의 건축화

국립현대미술관 아트폴리 展 큐브릭과 같은 사례에서 발견되는 현대건축에서 사용되는 폴리의 모습 중 하나이다. 이는 미술관 밖에 작은 미술관을 이벤트성으로 건축하여, 대중에게 호기심과 다채로운 경험을 부여함으로써 미술관과 대중의 거리를 좁혀주는 기능을 한다. 건축 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이 이벤트성 설치미술은 '폴리'라는 이름이 명명되지 않고도 현대미술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이다. 그에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000년부터 매해 여름마다 진행되고 있는 영국 런던의 서펜타인 갤러리(Serpentine Gallery)의 마당에서 행해지는 '파빌리온(Pavilion)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미술관 측은 2000년 자하 하디드를 시작으로, 매년 세계적 명성의 건축가 한 명을 디자이너로 선정하고 전면 마당에 여름 기간 동안

파빌리온을 설치하는 문화적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미술관과 대중의 거리를 좁혀주는 초기의 의도를 넘어서서 초청되는 건축가의 유명세와 설치된 건축에 담겨있는 시대정신으로 세계의 건축가들이 관심을 집중하는 문화행사로 자리 잡았다.

a: Frank Gehry, 2008 b: Jean Nouvel, 2010 c: Sou Fujimoto, 2013

<그림 13> 서펜타인 갤러리 파빌리온 프로젝트 참가작

이처럼 고정적인 건조물로써 인간의 삶을 담는 기능적인 공간 이외에, 건축이 미술과 결합하여, 이벤트성 설치미술로서 작품을 즐기고, 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건축의 모습으로 폴리가 실험되고 있다.

4.4. 건축의 확장된 영역, 그리고 융합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전통적으로 '폴리'는 조경의 영역에 속하는 디자인 요소였고, 독립적인 건축물 외의 공원을 비롯한 도시의 빈 공간에 대한 디자인 영역 또한 전통적으로 조경과 도시계획의 영역이었다. 모더니즘 시대의 건축가들은 장인정신으로 건축물을 아름다운 오브제로서 완결하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종래에 아름다운 오브제를 만드는 사고에서 벗어나 도시와 건조물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었으며, 솔리드한 오브제와 반대되는 도시의 보이드 공간, 대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즉, 건축물과 비교해 비공간(non-space)적인 성격을 지니기 마련인 땅을 건축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다. 따라서 건축가의 역할을 아름다운 건조물을 만드는 것에서 현대 도시의 혼돈과 불확정성을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닌 빈 공간(void)을 건물을 포함한 건축적 장치를 통해 만들어 주는 것으로 확장하게 되었고, 이러한 작업에서 폴리가 새로운 건축적 어휘로 등장하였다. 이는 근대정신의 산물인 이분법적 사고의 붕괴와 함께 하며, 건축의 조경, 도시계획으로의 확장은 폴리 프로젝트를 통해 이어져 나갔으며, 각각의 구분의 벽을 허물고 있다. 폴리 프로젝트는 AA School, 4.3그룹 등 특정 건축 그룹을 대상으로 작가를 초청하는 것에 나아가, 광주 폴리에서는 건축가를 비롯해, 회화, 설치미술, 미디어아트, 철학 등 다양한 사회 문화 전문가를 초청하여, 건축 도시를 넘어 더욱 다양한 장르와의 융합을 시도하고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정원 장식물에서 베르나르 츄미에 의해 현대적 변용으로 일반에게 새롭게 알려진 이후, 약 30년 동안 폴리가 현대 건축에서 어떻게 실험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첫째, 쇠퇴된 도시에 활력을 주기 위해 이벤트를 생성하는 장치라는 공통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폴리 프로젝트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의 접근방법의 변화에 따라 폴리에 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삽입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존 도시구조를 파괴하지 않고, 재개발이 진행되는 방식의 변화로, 폴리를 통한 현 도시조건의 재조정이 강조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둘째, 오사카 박람회의 폴리부터는 각각의 폴리를 서로 다른 디자이너가 맡아, 디자이너 브랜드를 가지는 예술품으로 존재, 폴리가 경관 디자인의 시각적 전시 조형요소로서의 역할도 갖게 되었다. 한편, 폴리는 도시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유사성을 갖지만, 환경조형물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자와 적극적인 상호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장치로서 도시재생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따라서 폴리는 환경조형물의 장식적 가치에 대한 단적인 기능을 넘어 사용자와의 보다 적극적인 교감을 통해, 도심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기존의 도시 환경과 문화, 도시민의 생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디자인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건축이 미술과 결합하여, 이벤트성 설치미술로서 작품을 즐기고, 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의미의 건축으로 폴리가 실험되고 있다.

넷째, 폴리를 통해 건축의 조경, 도시계획으로의 확장을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보다 다양한 예술, 사회 문화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폴리를 통해 도시디자인의 영역을 건축, 조경, 도시를 넘어 더욱 다양한 장르와의 융합을 시도하고 있다.

2014년 현재, 광주에서는 벌써 3번째 폴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2011년을 시작으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폴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현대 건축에서 폴리가 어떻게 실험되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재된 채 계획이 이어지고 있었다. 앞으로의 미래 도시 계획을 위해 이전의 자취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더 발전된 폴리의 실험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지난 30년간 각국의 도시에서 시도되었던 폴리에 대해 분석하였고, 앞으로의 폴리 프로젝트에 기초적인 참고 자료로서 의의를 가진다.

참고문헌

1. 길성호, 수용미학과 현대건축, 초판, 시공문화사, 서울, 2003
2. 승효상, 아이웨이웨이, 도가도비상도 圖可圖非常圖, 초판, 도서출판 광주비엔날레, 광주, 2011

3. Alex Wall, "Programming the Urban Surface", in Recovering Landscape, James Corner(ed.),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New York, 1999
4. Eduard Bru, "The Long-Distance Gaze", in New Landscapes, New Territories, Eduard Bru(ed.), ACTAR, Barcelona, 1997
5. Manuel Gausa, Housing: New Alternatives-New Systems, ACTAR, Barcelona. 1998
6. 도각, "꽃과 녹음의 박람회에 나타난 Follies", in 월간 건축문화, 월간 건축문화사, 서울, 1990.10
7. 승효상, "나다 컨트리크럽과 NCC FOLLY", in 월간 건축문화, 월간 건축문화사, 서울, 1992.5
8. http://architecture.rmit.edu.au/Projects/Docklands_Built_Projects
9. http://hangang.seoul.go.kr
10. http://www.gwangjufolly.org
11. http://www.mmca.go.kr/exhibitions
12. http://www.seongbuk.go.kr/newtown/plan/sector/status/Index.jsp

[논문접수 : 2014 03. 24]
[1차 심사 : 2014. 04. 21]
[2차 심사 : 2014. 05. 06]
[게재확정 : 2014. 06. 13]